

의정칼럼



정다은  
광주시의회 의원

5·18 관련 조례 정비에 부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개별조사보고서 공개와 종합보고서 작성을 둘러싸고 지역이 내내 소란했던 날이었다.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도 조사위에 조사보고서의 신속한 공개와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을 촉구하며 숨 가쁜 나날을 보냈다. 그 사이 5·18특위 소속 8명의 시의원은 특별한 조례를 발의했다. 광주시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시행하고 있는 11개의 조례를 현시대의 요구에 맞춰 통폐합하는 이른바 '5·18통합조례'가 그것이었다. 5·18특위는 지난해 6월 구성 결의안을 작성하면서 향후 1년간의 활동 계획을 수립했고, 그 중 5·18조례의 정비는 5·18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주요한 내용이었다.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이 흐르도록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을 위한 조례를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만들어 써왔다. 총 11개의 조례가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제각각 만들어졌고 각기 다른 책임 부서에서 관리됐다. 그러다 보니 조례 상호 간에 내용과 체계가 조화를 이루 모순이나 갈등 없이, 또 입법의 공백 없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정책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다. 5·18은 특히 더 그러하다. 그런 상황에서 각기 다른 시점에 만들어진 입수 개의 5·18조례를 체계적으로 조감하고 모순 없이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체계적 정당성과 현실 부합성에 큰 기대를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었다. 더구나 광주에서 5·18에 관한 조례를 만들거나 손보는 일은 누군가가 섣불리 시작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더욱 개선이 더디었으리라 짐작한다.

이렇듯 여러 이유로 난립하는 조례는 5·18 관련 정책들을 실현하는 광주시와 관련 기관과 단체 간의 역할과 권한의 분화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 당연한 결과로 5·18 관련 사업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채 시민들의 공감에서 멀어져갔다.

오늘날 외면받고 공격받는 것은 5·18에 관한 사람만이 아니라, 5·18에 관한 유·무형의 기념사업 역시 마찬가지였다. 5·18특위가 지난해 7월 10일 출범 당시 5·18조례 제도의 정비를 공약으로 내건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다.

한편 강기정 시장도 같은달 20일 5·18조례의 통합정비를 지시하면서, 5·18특위와 광주시, 5·18기념재단, 광주연구원, 전남대학교 5·18연구소가 함께하는 '광주시 TF'가 꾸러졌다. 해당 TF에서 약 7개월 간의 숙의를 통해 조례안이 작성됐다.

광주시의회 내에서 조례입법과 5·18민주화운동에 전문성을 갖춘 8인으로 구성된 '광주시의회 TF'가 광주광역시 TF 작성 조례안을 기초로 40여 일간 집중 연구를 한 끝에 비로소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를 성안했다.

광주시의회의 5·18통합조례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정책의 총체적인 관리체계 및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과 단체 그리고 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분화했다. 그동안 각 기관의 각 부서, 각 단체에서 파편적으로 추진됐던 5·18 관련 정책과 업무가 이제는 기관 간 정례적 협력 체계 속에서 공유되고 검토되면서 공동의 목표와 단일의 계획 아래 체계적이고 모순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몇몇 단위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논의구조에서 벗어나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규모를 대폭 확대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에서 유무형의 기념사업을 총괄심사·자문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시민의 눈 밖에 나던 5·18정책과 사업들이 변화된 사회문화적 요청에 쉽게 반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조례로 과도하게 명문화돼 있거나 방만하게 정해져 있던 5·18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최대한 간소화해 5·18 관련 정책과 사업이 새롭게 구상될 기회를 만들었다.

넷째, 5·18정신의 헌법전문수록과 진상규명 및 왜곡 대응, 규모별 관리와 같이 그동안 조례에서 정립이 없거나 미비했던 내용을 새롭게 규정해 광주시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렇게 광주시의회 5·18특위와 광주시가 함께 만들어 낸 5·18통합조례가 이제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목전에 두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중순쯤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만들어져 유지되던 제도를 바꾸는 조례가 부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지난해 5월 광주 5·18의 변화와 성찰을 촉구한 5명의 청년 시의원을 귀하게 여겨줬던 시민들께서 올해 5월에는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로써 시작될 제도 변화에 마음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것을 부탁 드린다.

국립목포대학교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학교 연합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4년 글로벌대학30에 예비 지정됐다. 목포대는 해상풍력, 해양관광, 조선산업 등을 핵심으로 한 특성화 계획을,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은 지역과 함께하는 공공형 사립대학 모델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보건대도 대구보건대·대전보건대와 함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보건·의료계열 전문대학간 단일 사단법인 설립에 기반한 초광역 연합을 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대학 통합 뿐만 아니라 연합 형태의 공동 신청 유형이 도입됨에 따라 광주·전남대·목포대 성과를 냈다. 이들 대학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회에서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하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8월 말 10개 내외로 글로벌대학을 선정한다. 첫 해인 지난해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도 자격을 유지해 본지정에 도전하게 됐다.

글로벌대학은 급격한 학생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허브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할만한 역량 있는 비수도권 대학에 정부가 5년간 1천억원을 과격 지원한다. 지난해는 전국에서 10곳이 최종 선정됐으며 순천대가 포함됐다. 순천대는 스마트팜, 애니메이션,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3대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체제를 전면 개편하고, 수요에 대응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며 강소기업 지원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전남도는 시·중부권에 위치한 목포대, 동신대가 올해 포함되면 동부권에 위치한 순천대와 아울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만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대학과 지역, 산업체 간 벽 허물기보다 고도화하며 대학 간 통합 및 연합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루고 나아가 글로벌화를 모색해야 한다. 행복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동반성장은 필수불가결한 전제다.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단초다. 지·산·학·거점대학 육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전남 동·서·중부 균형 글로벌대 본지정에 최선을

‘금사과’, ‘금김’ 등 이른바 ‘금(金)’에 비유되며 가격이 치솟는 고물가 시대에 금의 가치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억(億)’ 소리가 날 정도로 급등세를 이어가는 중이며 중동 위기로 더 올 가능성도 높다. 거래소 한 톤 시세가 45만원, 대면 소매가는 54만원이 넘는다. 쉽게 살 수 없는 진짜 금이다.

이란-이스라엘 충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 금거래소에 따르면 순금 한 톤(3.75g) 구매가는 45만4천원에 달했다. 2005년 개장 이래 가장 높다. 한 톤을 팔 때는 장중 한 때 최고 금액으로 순금 39만2천원, 18K 28만8천200원, 14K 22만3천500원이다. 가격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ETF, KRX금현물 등 금거래를 통한 재테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 선 시세, 돌잔치, 금니 등을 언급하는 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하지만 금은방들은 거래가 급격히 줄어 울상

역소리 나는 금값에 서민 상대적 박탈감도 커진다

를 짓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순금 한 톤 당 30만원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발길이 끊겨버린 것이다. 간간히 찾는 손님도 장기 불황에 따른 생계 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판매를 문의하는 사례가 많다. 금융권 대출이자 등 막대한 사정을 호소하기도 한다. 주인들은 더 장사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 대란의 원인으로 탈 달러화를 꼽는다.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의 경우가 그렇고 중국은 달러를 팔아서 금을 다량 구매하고 있다며 달러에 대한 기대감이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금에 투자하는 상황이라고 들었다.

현재 금 시장에서 매수는 돈 많은 고객 중심으로, 매매는 돈이 필요한 고객 위주로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는 역대 최고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 리스크가 확산된다면 시세가 더 오를 수 있다. 갈수록 ‘귀한 금’에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도 심화되는 모습이다. 하루가 다르게 뛰는 물가에 허리가 휘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기고



윤은상  
前 광주교육연구실장 총무부장

당나라의 여류시인 ‘설도’를 생각하다

사대재녀’로 일컬어진다. 지금도 90여 수의 시가 남아 있다. 82년, 그녀의 나이 64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듬해인 83년에 재상을 지낸 단문장이 그녀를 위해 직접 묘지명을 짓고 묘비에 ‘서천 여교서 설도 흥도 지묘’라고 썼다.

설도는 16세 때 자신의 용모와 음악, 그리고 문장력을 빌려 그녀의 이름을 약역에 올리고 관기가 됐다.

기생이 된 그녀의 명성은 금세 쓰촨성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문장 외에 당시 백거이, 원진, 위고 등 명사들과 나눈 애정으로도 유명하다. 덕종 때 위고가 사천 안무사로 쓰촨 지역을 다스리면서 그녀에게 연정을 품게 됐는데 그녀를 술자리에 불러 시를 짓게 하고 ‘여교서’란 별명을 붙여줬다. 그때부터 기생을 ‘여교서’라고 불렀다.

당시 명성이 자자했던 31세의 원진이 좌천돼 감찰어사 신분으로 지방 순시를 갔다가 설도의 명성을 듣고 쓰촨 지역에 와서 그녀를 만났다. 당시 설도의 나이는 원진보다 11년 연상이었으나 두 사람은 시를 통해서 연애를 나눴다. 두 사람은 석 달 동안 곁같은 시간을 보냈다. 설도는 원진과 애정을 나누며 100여 편의 연시를 남겼다. 두 사람의 연애는 당시 큰 화제였다. 중년의 설도는 이상적인 젊은 원진에게 모든 것을 바칠 정도로 깊이 빠졌다. 하지만 두 사람의 애정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얼마 지나서 이별 서로 동근 버루를 반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간직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정표로 삼으며 이별을 예고했다. 원진은 옛날 은사였던 위하경을 만났는데 그는 원진이 기생을 좋아한다고 책망하면서 자기의 절녀에게 혼인하기를 버렸다. 후에 원

진과 설도는 성도에서 만났는데 위씨녀가 원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버루를 시냇물에 빠뜨려 버렸다. 설도는 자신의 한계와 원시 문중과 부딪칠 수 없음을 알았으며, 또 위씨가 원진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어 드디어 설도와 사랑이 깨어지는 아픔을 맛보게 됐다. 원진과 위씨는 결혼을 했고, 설도는 홀로 남아 외로이 난세의 신세가 됐다. 서로가 나이와 신분의 차이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진은 본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서로의 애정은 그렇게 끝났다. 설도는 시를 써서 자신의 마음을 원진에게 전하는 수밖에 없었다. 설도는 직접 만든 붉은 종이에 시를 써 보냈는데, 훗날 많은 사람들이 모방했다고 한다. 이 종이를 후세 사람들이 ‘설도전’이라고 불렀다. 설도는 40세가 돼서야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나 이미 그때는 시들어진 꽃이었다. 그 뒤 금강나무에 떠나는 원진을 만났지만, 서로는 아무 말없이 이별을 한다. 그 이후 원진은 ‘유채춘’이라는 연극배우와 사랑에 빠지고 설도는 절대로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홀로 지낸다. 그 뒤 설도는 비록 원진과 함께할 수는 없지만 죽을 때까지 일관된 심으로 그를 사랑했다고 한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그녀는 지금의 쓰촨성 청도(성도)시의 서쪽교외에 있는 원화계로 거처를 옮겼으나, 세상이 그녀를 가만 두지 않아 다시 원화계를 떠나 벽계방으로 옮겨 살기시라는 누각을 짓고 인생의 마지막을 보냈다. 쓰촨성 성도시의 망강루 공원에 설도의 무덤과 그녀의 이름을 딴 우물 ‘설도정’이 있다. 설도정의 물로 빚는 술은 ‘설도주라 불렀다.

파스한 봄이 오고 여기저기에서 개나리, 복사꽃, 벚꽃 소식이 들리니 원진을 그리워하는 당나라의 여류시인 설도의 아름다운 삶을 생각나게 한다. 그녀는 원진과의 이별 후에 ‘춘망사(春望詞)’라는 연시를 남겼다.

“꽃이 피어도, 함께 감상할 수 없고, 꽃이 저도 함께 슬퍼하지 못하네, 묻고 싶어서, 그리운 그대가 있는 곳, 꽃피고 꽃지는 이 시절에 사무치게 보고 싶어서.” (花開不同賞, 春問相思處, 花落時)

‘춘망사’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에는 그 무엇을 보아도 즐겁지 않고, 또 무엇을 보아도 본 것 같지 않다는 사랑의 위대함을 노래한 시이다.

1천년 전에 지은 설도의 ‘춘망사’ 4수 중 3수를 소재로 김소월의 스승인 김억이 번역하고 김성태가 작곡한 ‘동심초라는 가곡으로 변해 우리에게 불리우고 있다.

설도는 장안의 쓰촨성의 성도시의 흥도였다. 빼어난 용모와 글재주로 아름다운 시를 남겼다. 당대(唐代)의 문학사에서 여류시인을 언급할 때 ‘설도’라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는 논의할 수 없을 정도의 존재감을 갖고 있는 저명한 문학인이다. 유채춘, 아현기, 이와 더불어 당대 4대 여류시인으로 불린다. 또한 탁운문, 화예부인, 황이와 더불어 ‘촉중

독자투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도박이 스마트폰을 통해 빠르게 번지고 있다. 광고 사이트를 보면 ‘안전하다’는 문구가 눈에 띄고 까다로운 인증도 필요하지 않아 쉽게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은 빚을 갚기 위해 학교 폭력, 마약 배달 등 2차 범죄에 노출되고 있으며, 온라인 도박으로 걸려든 청소년은 1년 사이 3배 늘었다. 도박 조직은 청소년

들을 고용해 사이트 홍보에 이용하거나 하면, 해외에 거점을 둔 국내 조직 총판에는 중학생도 있었다고 한다.

청소년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박 사이트, 관련 광고 차단이 우선이지만, 사이트 안에 IP가 너무 많다 보니 일부를 차단해도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온라인 도박이 범피라 인식돼 갔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학교 교육이 병행돼야 하며, 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와 상담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애초에 도박을 접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와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정화·정충정찰서 경비안보과>

그래픽 뉴스

외국인 노동자 이직 사유 59% “임금 낮거나 일 위험해서”

지난해 이직을 희망한 외국인 임금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저임금, 위험한 작업 등을 이직 사유로 든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17일 이런 내용의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 생활’을 발표했다. 지난해 외국인 임금근로자 중 이직 희망 비율은 12.3%였다. 사유로는 ‘임금이 낮아서’가 39.2%로 가장 많았고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19.4%)가 뒤를 이었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임금이 낮아서’ 이직을 원하는 노동자 비중은 영주(44.8%)에서 가장 높았고 유학생(44.4%), 전문인력(42.5%) 등 순이었다.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 이직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방문취업(36.0%), 결혼이민(23.3%), 재외동포(23.0%) 순으로 높았다. 지난 1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의 13.5%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유학생(21.5%) 비중이 가장 높았고 방문취업(16.3%), 재외동포(14.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재외동포의 46.4%, 방문취업 외국인의 43.0%가 병원비가 부담돼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0~50시간 비중이 56.5%로 가장 많았다. 임금근로자의 50.6%는 월평균 200만~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이직 희망* 응답비율	임금이 낮아서	기타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	
전체	12.3%	39.2%	41.4%	19.4%
전문인력	18.9%	42.5%	51.7%	5.7%
결혼이민	16.8%	35.0%	41.7%	23.3%
유학생	16.6%	44.4%	44.4%	11.1%
재외동포	12.1%	37.4%	39.2%	23.0%
방문취업	11.9%	34.7%	29.3%	36.0%
영주	11.1%	44.8%	34.4%	21.9%
비전문취업	8.9%	40.8%	41.6%	17.6%
기타	16.5%	38.7%	49.3%	12.7%

\* 상대표준오차(RSE) 25% 이상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편집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업 본 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고시요건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